

## 보도기획

### ▶ 1면에서 이어짐

학교 밖에 있는 식당에 가려면 비교적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캠 특성상 학생들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학식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 예고 없이 가격이 인상된 것에 비해 학식의 질은 바뀌지 않자,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부터 불매운동을 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학생여론은 급격히 나빠졌다.

이에 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지난 8일 교내 학식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학교와의 면담을 통해 학교와 업체 사이의 유착 관계나 비리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학식 개선 협의회’를 신설하여 학생 의견을 전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된다면 내년 계약 만료 시점에 업체 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학의 성명서 공개에도 학생들은 “지금까지 가격에 걸맞지 않은 식단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이냐”, “메뉴 개선은 없고 가격만 올리는 이유를 말해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종 결과 학식 가격이 인상된 이유는 위탁급식업체인 한화 푸디스트가 이를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간 한화 푸디스트는 우리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요구해왔다. 총무팀 박수인 계장은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위해 안 된다고 벼쳤지만, 올해 초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르면서 이번에 학식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업체 유지가 어렵다고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상승 이외에도 한화 푸디스트는 ▲원가부담으로 인한 식질 유지 어려움 ▲급식 품질에 대한 요구 상향 평준화를 이유로 들었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다(多)코너 다(多)단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며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식재료 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총무팀과 총학생회, 중간업체인 KMC와 위탁급식업체 한화 푸디스트는 지난 방학 동안 총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은 “첫 회의에서 한화 푸디스트는 조식과 공대 떡볶이를 폐지하면서 한식만 700원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조식과 공대 떡볶이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인상에 바로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총학의 거절이 있고 난 후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학생식당 가격 인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됐고, ‘학식의 질이 좋아진다면 700원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후 3차 회의에서 김 회장은 “질 좋은 학식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공과대학 식당과 학생회관 식당) 가격 인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식 가격은 700원만 인상되지 않았으며, 예정에 없던 떡볶이의 가격은 2,000원이 올랐다. 약 40%가 한 번에 오른 것이다. 김 회장은 “논의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학식 가격 인상에 총학 또한 당황했다”고 말했다. 총학과의 논의와 다르게 진행된 점에 대해 총무팀 박수인 계장은 “분식류 인상에 대해서는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식당에서 나름대로 개선을 하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정원과 제2기숙사는 우리학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업체들은 총무팀이 아닌 각각의 운영 주체들과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염밀히 말하면 우정원과 제2기숙사는 공과대학과 학생회관의 학식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함께 인상되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4개의 학생식당 모두 한화 푸디스트 한 곳이 도맡아 운영을 하므로 4개의 식당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폭으로 인상됐던 것으로 보인다. 우정원 관계자는 “학생식당과 공과대학 식당이 인상이 결정되면 관례적으로 생활관 식당도 금액을 같이 인상해 왔다”며 “생활관 식당 또한 (한화 푸디스트가 말했던) 운영상의 어려



①	②
③	④
⑤	

- ① 3월 7일 공과대학 점심, 4000원
- ② 3월 16일 학생회관 저녁, 3500원
- ③ 3월 13일 우정원 저녁, 3500원
- ④ 3월 8일 제2기숙사 점심, 4000원
- ⑤ 서울캠퍼스 청운관 학생식당 메뉴진열대  
(사진=독자제공)

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자치회에서도 학교의 결정에 따라 식단이 인상을 계획 했다”고 밝혔다. 교직원 식당의 경우 교수의회와 노동조합 등과 협의하여 작년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총무팀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인상을 해주지 않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동안 식당 운영이 멈추는 것이 더 걱정스러워 급하게 처리한 것 같다”며 “100원, 200원 정도의 인상이었으면 비교적 반발이 적었을 수 있지만 인상 폭이 커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생회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 학생지원처는 한화 푸디스트 측 담당자를 만났다고 전했다.

학생지원처 조지원 과장은 “한식만 700원 인상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한화 푸디스트의 결정이 당황스럽다”며 “후속 조치를 위해 담당자를 만난 것”이라고 전했다. 조 과장은 “(한화 푸디스트 쪽에서) 학식의 질을 올리기 위해 식자재와 개별 식기 구입을 했지만, 양이 많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며 “앞으로 종학을 통해 학식에 대한 피드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울캠 메뉴와 비슷한 식단을 짜보겠다는 얘기도 했다”며 한화 푸디스트 입장장을 전했다.

사실상 해결방안은 시간을 가지고 한화 측의 대응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학생들은 인상된 가격에 만족할만한 식단이 제공되지 않자 위탁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일(유전공학 2014) 씨는 “서울캠퍼스 수준으로 질이 좋아진다면 다시 이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더 이상 학식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허재현(스페인어학 2013) 씨도 “국제캠 학식은 가격 대비 맛이 없어 잘 이용하지 않는다”며 “서울캠퍼스에 있는

생활협동조합(생협)이 도입된다면 훨씬 나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가깝지만 서울캠퍼스에서는 나름의 대답을 찾은 듯하다. 서울캠퍼스(서울캠) 또한 처음에는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외부 음식점보다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식당 이용률도 저조했다. 2011년 서울캠 종학이 진행한 ‘경희학우 생활만족도 조사’에서 ‘1주일에 학생식당을 평균 몇 번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 약 81%의 학생들이 1~2회라고 답했다. 맛과 메뉴의 다양성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당시에만 해도 서울캠과 국제캠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1년 서울캠 종학은 학생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학생식당 직영화’를 8대 학생요구안 중 하

나로 상정했다. 그 후 학생지원처, 관리과, 생협, 학생회가 모여 ‘학생식당 개선 특별팀’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전 체학생총회가 성사된 지 1년여 만인 2012년, 생협 직영으로 바뀐 청운관 학생식당이 새로 개장됐다.

생협 직영으로 바뀐 이후 학식에 대한 만족도는 급격히 상승했다. 학식을 먹기 위해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는 것은 기본이고, 외부인까지 학식을 먹으러 오기도 한다. 경희대학식을 대표하는 ‘짜게찌(짜장라면+계란+치즈)’라는 메뉴는 TV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캠 생협 담당자는 국제캠에 생협을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서울캠에 생협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국제캠에 지점을 내서 시작하면 된다”며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담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임대료’와 ‘계약’이다.

현재 국제캠은 민간 업자들에게 세를 줘서 식당 및 서점과 같은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생협이 들어오려면 학교는 임대료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하고, 외부 업체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 단체인 생협 특성상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내지 않는 대신 생협은 수익의 대부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서울캠 생협은 수익의 일부를 학교로 전출하는 것 외에 생활비 장학, 학생 복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생협 측은 “구성원들이 수익을 통해 새로운 것을 제공받길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익보다는 학생들의 부담을 더는 쪽을 원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엔 구성원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학생 복지를 위해 학교 내 편의시설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인식은 국제캠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총무팀 박수인 계장은 “학생식당뿐 아니라 매점, 복사실, 카페 등에서 임대료 수입을 받긴 하지만 일정 부분을 복지기금으로 정산해 종학생회에게 학생지원금으로 제공한다”며 “임대료 수입을 육십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캠 청운관 학식을 생협 직영화로 바꾸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인 2011년, 국제캠 총무팀은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식 직영화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직영화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서울캠 청운관의 직영식당화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직영화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싼 값의 질 좋은 학식을 원한다’/대학주보 제1503호, 2011. 11. 06> 취재 결과, 공과대학과 학생회관 식당의 계약만료 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우정원 식당의 경우 올해 6월까지다.

“

합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한 외부업체 …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 끓

“